

BASIC BIBLE TEACHING # 10

THE MEANING OF BAPTISM

① In Lesson 9 we looked at the teaching of the apostle Peter. About seven weeks after the resurrection of Jesus, he stood up in Jerusalem and spoke these words.

Acts 2: 38

'Repent and be baptis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② This is God's commandment to everyone who hears about His Son. Peter talks about two things that people must do.

③ 1) Repent: - In the last lesson we learned that this means to be sorry for our sins and to seek the way back to God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④ 2)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⑤ Peter told people that their repentance must be followed by baptism. Without this they would not receive the promised gift of eternal life when Jesus returns to the earth. Without baptism their sins could not be forgiven.

⑥ Baptism means 'to be buried under water'. When someone is baptized, they go down under the water, and come out again.

⑦ Why does God ask us to be baptized when we want to become disciples of the Lord Jesus? Look at these words from the Gospel of Matthew.

Matthew 3:1-2,5-6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 in the Desert of Judea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성서의 기초 제 10 과

뱁티즘(침례)의 의미

제 9 과에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았다. 예수의 부활 7 주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서서 이 말씀을 하였다.

사도행전 2:38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에 관해 말했다.

1) 회개 - 전 과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관해 찔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배웠다.

2) 침례 - 죄를 용서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뒤이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침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받을 수 없다. 침례가 없이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침례는 '물속에서 장사 지낸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은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자.

마태복음 3:1-2, 5-6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였다. 그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하였다.

'People went out to him from Jerusalem and all Judea and the whole region of the Jordan.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s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⑧ John the Baptist was a man sent by God to prepare people for the coming of Jesus. He insisted that they confess their sins and then be baptized. From this we can understand that baptism is a kind of washing. It is not a washing of our dirty skin. It is the washing away of our sins. Of course we can see when our skin is dirty. We cannot see when our sins have made us dirty inside

⑨ When we come out of the water we cannot see that we have had our sins washed away. But this is just how God sees us. When we have been baptized, he sees us as people who are clean inside, without sin. When we wash ourselves, it is because we know that we are dirty.

⑩ John insisted that people should tell him, or confess that they had sinned. They acknowledged that sin had made them dirty inside and that they needed to be made clean. Then he baptized them to make their hearts and lives ready for the coming of Jesus. They were now clean inside.

⑪ In the Bible, the apostle Paul in Romans chapter 6 tells us about baptism.

Romans 6:3-5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s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sed into his death ?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like this in his death,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his resurrection

그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부근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침례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침례가 일종의 씻는 일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피부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버리는 일이다. 물론 우리는 몸의 더러움은 볼 수 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의 안이 더러워진 것은 볼 수 없다.

우리가 물에서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가 씻어짐을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으면, 우리의 안이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 우리가 몸을 씻을 때는 더럽기 때문이다.

요한은 사람들이 죄 지었음을 그에게 말하거나 고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죄가 그들의 안을 더럽게 만들어 깨끗하게 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삶에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요한은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제 그들의 안이 깨끗해졌다.

성서 로마서 6 장에서 사도바울이 침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로마서 6:3-5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¹² When we are baptized it is as if we are buried with Jesus. We cannot live under water, we would drown if we stayed there! So going under the water and coming out again is like dying and coming back to life. It is a witness before God that we believe our sins are forgiven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¹³ Paul also told us something else about baptism. He said that before we repent and are baptized we are slaves to sin. Sin is our master; we have to obey it. It rules our lives. We cannot save ourselves from sin and death. We need to accept the salvation God provides through the Lord Jesus. When we repent and are baptized, we are freed from sin.

Romans 6:12-13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so that you obey its evil desires. Do not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sin, as instruments of wickedness, but rather offer yourselves to God, as those who have been brought from death to life; and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him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¹⁴ We are freed from sin and have chosen to serve a new master. We have chosen to serve God.

¹⁵ We have chosen to obey his commandments in our lives. We have chosen to follow the example of Jesus as our master and to be his disciples. This is not easy, but we know that God will forgive us when we fail. He will do this because we believe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for our sins.

¹⁶ So baptism is the beginning of a new life. The old life has died in the water and the person who has been baptized comes out to begin a new life as one of God's children. The person who has done this then tries to follow the teaching of Jesus and put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 우리는 물속에서 살 수 없다.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익사할 것이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 받는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 하는 것이다.

바울은 침례에 관하여 더 말하고 있다. 그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였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한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로마서 6:12-13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새 주인을 섬기기로 택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택했다. 우리 주 예수의 본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따르기로 하였다. 이것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용서하실 것이다.

따라서 침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우리의 옛 생활은 물에서 죽었고 침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행한 사람은 그 후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언제나 그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첫

God first in his life at all times.

⑩ If you have a Bible please read the whole of Romans chapter 6 for yourself.

Questions

1. What is baptism?
2. What did John ask people to do before he would baptize them?
3. What is washed away in baptism?
4. Whose death do we remember when we are baptized?
5. In the old life, whose slaves are we?
6. In the new life, whose slaves are we?

번재로 둔다.

성서를 가지고 있다면 로마서 6 장을 읽어보라

질문

1. 침례란 무엇인가?
2. 요한이 침례를 주기 전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나?
3. 침례를 통하여 무엇을 씻어야 하나?
4.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누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나?
5. 옛 생활에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나?
6. 새 생활에서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